

장흥군 “옛 장흥교도소 체험하세요”

‘더 프리즌’ 등 영화 촬영 명소 3월 개방...군민 대상 28일까지 신청 접수

장흥군이 오랫동안 닫혔던 옛 장흥교도소 문을 잠시 열고 현재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옛 장흥교도소를 활용해 추진하는 ‘정남진 장흥예술타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은 군민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2회(10시, 14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안전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인솔 하에 교도소의 역사와 건물 소개를 듣고 내부 둘러보기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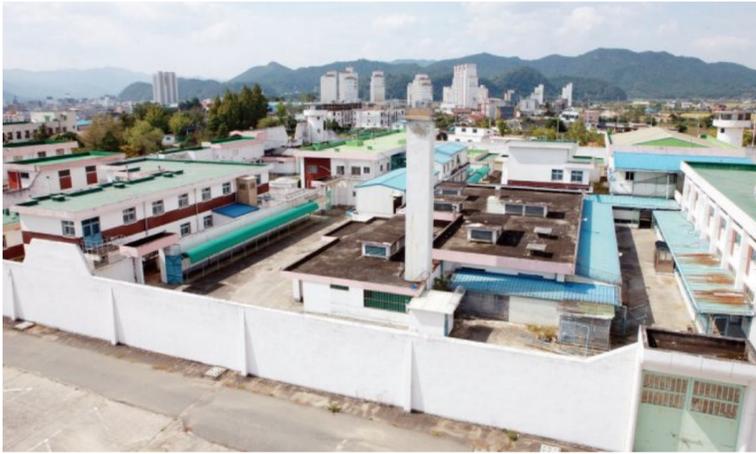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패스로 진행하며 한 달의 시범운영 후 추후 연장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1975년 문을 연 읍내 장흥교도소는 2015년 용산면으로 신축 이전하기까지 부지 9만318㎡에 건물 42개 동 규모의 교정시설로 이용됐다.

2019년 장흥군에서 매입했고,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정남진장흥예술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옛 장흥교도소는 1970-80년대 풍경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드라마



장흥군이 옛 장흥교도소를 활용해 추진하는 정남진장흥예술타운 조성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다. 옛 장흥교도소 모습. <장흥군 제공>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비롯해 한석규·김래원 주연의 ‘더 프리즌’ 등 다수의 작품이 촬영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옛 장흥교도소는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 중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한정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고 앞으로 조성할 공간에 대한 의견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한국의 나폴리’ 강진 마랑에 관광호텔

군, 이안시티건설과 투자 협약...4월 착공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미항(美港) 강진 마랑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강진군(군수 이승욱·왼쪽)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이안시티건설(대표 임인수·오른쪽)과 마랑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안시티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2로 지식산업센터(2000억원)를 건축하고 있으며 영광군에 탄운하우스(400억원) 건립을 계획 중인 중견 기업이다.

마랑 관광호텔은 강진군 마랑면 마랑리 59-4번지 1719㎡(520평)의 부지에 12층 70객실 규모로, 오는 4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건물 1-2층은 주차장 및 관리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3-11층에는 70개 객실, 12층은 연회장, 옥상풀장(인피니트 풀) 등 최신식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옥상 풀장은 마랑의 멋진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어 휴가철 인기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인수 이안시티건설 대표는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미항 마랑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진군에 감사드립니다”며 “강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



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강진의 체류형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과감히 투자를 결정해주신 임인수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마랑 관광호텔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이 강진의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나비축제·국향대전 주민 의견 청취

15일까지 포럼

함평군이 올해 지역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함평군은 오는 1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국향대전 피드백 및 나비축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축제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축제를 만

들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지역상가, 축제 임점업체 등 주민들이 참여해 지난해 열린 국향대전 개선 방안부터 나비축제까지 축제 전반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만에 관람객을 맞이하는 함평나비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군민, 축제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오미크론 확산’ 담양 대나무축제 취소

경관조성사업 등 행사로 대체

담양군의 대표 축제인 ‘담양대나무축제’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올해도 열리지 않는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해 축제 개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 예정된 ‘제22회 담양대나무축제’는 잠시 멈춤(취소)하고 경관 조성 등 대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됐으며, 김일태 전담대 교수를 임기 2년의 이사장으로 선임해 축제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대면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방역 지침에 따

라 지역 감염 예방과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는 취소하고 경관조성과 함께 추후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소규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힘든 상황인 만큼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결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보다 성대한 대나무축제를 개최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성군, 자가격리자·재택치료자에 전담 공무원 배정

156명 행정인력 등 261명 투입

장성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관리에 나섰다.

장성군에 따르면 설 명절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156명의 행정 인력을 긴급 투입, 총 261명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주민에게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담 공무원은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군은 이와 함께 터미널과 기차역, 종교시설, 공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출입관리 방역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휴대전화 긴급 재난문자 전송은 물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등도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과 SNS 계정 등을 활



장성군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군민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장성군 제공>

용해 지난 9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도 이어가는 중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높다”며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5월까지 연장

화순군이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할인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등 지역 28개 업무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 또는 환전할 수 있다.

화순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하고 충전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예술가로 산다는 것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2월호

2022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술가로 산다는 것

위드 코로나 시대

- 코로나 위기 3년째 지속 예술 긴급지원 부족하다
- 코로나로 고립된 예술가들의 새로운 도전
- 밥이 안 되는 예술이지만 자부심으로 버틴다

양로 오디세이

美路 味路

우주로 열린 생명의 땅
고흥의 숨결, 아름답다

연중 기획·광주 한바퀴

GWANGJU TOUR

#2월 광주여행 #전통 #별밤 #시장 #별빛

우주를 향한 발걸음,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 예술의 섬' 연흥도와 '꽃정원' 축성
- 나르카피 220 & 예멘식품 유자·석류
- 농부가 운영하는 유자엔카페

예향 초대석

K-컬처 가이드북 퍼낸 중앙대 석좌교수
민병철

“한국문화의 핵심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해외문화기행 ③-독일의 문화수도 뮌헨

뮌헨 슈바빙 거리에서
자연과 예술로 위로받다

클릭, 문화현장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박수근·봄을 기다리는 나목’전

화제의 전시

‘용맹, 친근, 익살’ 그림으로 만나는 호랑이
임인년 맞아 다양한 호랑이 세화전

2022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나를 위로하는 문학’
나와 세상의 이야기
담아 독자와 나누고 싶습니다

2022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예향이 만난 이 사람

FA 대어로 고향 돌아온 KIA타이거즈 타자, 나성범
한국 문화에 폭 빠져 한국 사는 미 방송인, 마크 테토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볼 미 바이 유어 네임’과
바흐 ‘카프리치오 BWV992’

왕인의 ‘예술가의 한 끼’

조각가 김종영, ‘꽃대궐’서
미나리 대구탕 즐겨